



전북도내 민, 관, 군, 경이 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하는 2017년 제3차 전라도 통합방위 회의가 7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송하진도지사를 비롯하여 통합방위위원 30여명이 참석해 열린 가운데 2017년 을지연습 계획보고 및 북한의 대남위협 전망 등 회의를 갖고 있다.

# 전북도 통합방위태세 확립 결의

### 테러위협·북한 도발에 안보 강화·위기상황 대응능력 제고...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전북도는 7일, '2017년 제3차 전라북도 통합방위회'를 갖고 민·관·군·경이 다 함께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을 다짐했다.

지역안보태세를 점검하고 민·관·군·경 협조체제로 통합방위 태세를 확고히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국정원의 북한의 대남위협 전망 보고와 2017년 전라북도 을지연습(8.21~8.24) 계획보고 및 을지연습 군경 작전상황 보고에 대해 전라북도, 제35보병사단, 전북지방경찰청 보고가 있었다.

송하진 지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잇따른 도발에 따라 튼튼한 지역안보 태세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며 어떠한 안보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평소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8월21일부터 실시되는 을지연습에 철저한 준비와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도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훈련에 참여해 줄 것"을 강조했다.

# 연구개발장비,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세요

전라북도가 도내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대학 등이 보유한 연구개발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고 도내 기업과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정보제공시스템(<http://jbjangbi.jp.or.kr>)의 이용 확산을 위해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에서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장소가 제한적인 PC나 정보경신에 취약한 장비 책자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모바일 서비스를 마련했다. 특히, 신규 시행 중인 '전라북도 공

동활용 연구개발장비 이용 지원'과 관련,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현장 신청 기능을 반영했다. 도내 기업이 장비보유기관 담당자와 상담하고 스마트폰 등으로 현장에서 장비이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준비했다. 이러한 서비스는 도내 기업의 장비이용료 지원을 위한 절차와 접근 방

법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했다. 도 전병순 미래산업과장은 "앞으로도 전북도내의 다양한 기관에서 보유 중인 공동활용 장비를 관내 기업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하천·저수지에 붕어 27만마리 방류

### 어업인 4억원 이상 소득 증대·수생태계 복원 전망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는 도내 내수면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8월 7일부터 9일까지 토산어종인 어린 붕어 27만마리를 6개 시·군의 하천 및 저수지에 방류한다고 밝혔다.

방류장소(방류량)는 군산 욕구제(50천마리), 익산 목천포(30천마리), 진안 용담호(50천마리), 장수 금강(40천마리), 고창 용대제(50천마리), 부안 청호제(50천마리)이다. 이번에 방류하는 어린 붕어는 민물

고기시험장에서 자체관리중인 성숙한 붕어 어미로부터 산란기에 수정란을 확보, 약 60일간 사육관리를 통해 4cm이상까지 성장시킨 것으로서 방류전질병검사를 통과한 건강한 우량종자이다. 방류 후 어린 붕어는 3년 뒤에 20cm내외의 크기로 성장하여 지역 농·어업인에게 4억원 이상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생태계 먹이사슬 맨 아래에 있는 붕어는 큰 물고기의 먹이가

되어, 하천 생태계 복원 및 균형을 유지시켜 준다. 수산기술연구소 최일호 소장은 "점차 사라져가는 소중한 토산붕어 복원을 위해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어린붕어 4,035천마리를 도내 하천과 저수지에 무상 방류하였고, 앞으로도 지역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는 교부가가치 내수면 어종을 발굴 생산하여 지속적으로 방류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평생학습 통해 지역공동체 만든다

### 도, 시·군·기관 공모사업 추진

전북도와 전라북도평생교육진흥원이 14개 시군과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라도 전역에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하고 학습을 통해 상생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추진된다. 추진분야는 '지역특화형 평생학습 지원사업' 등 5개 분야이다. 또한 지난 7월 교육부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국비와 도비를 합쳐 총 8천만원이 시군 및 관련기관에 지원된다. 지역특화형 평생학습 지원사업은 평생학습관, 도서관, 문화의집 등의 평생학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 고유의 특화사업, 인프라, 프로그램 등과 연계한 지역밀착형 평생학

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생애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학습형 일자리 발굴을 목표로 경력 단절 여성, 은퇴자 등이 학습을 통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북형 학습공동체 지원사업은 주로 시군 읍·면·동을 기준으로 지역민들이 모여 민주시민교육, 지역문제 해결 방안 모색 등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복원과 확산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은 소규모 학습동아리 활성화이다. 평생학습 격차해소 지원사업은 외국인 노동자, 노인, 다문화가정, 장애인, 학교 밖 청소년 등 학습소외계층의 격차해소를 위해 지원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8월 9일부터 16일까지 전라북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직접 사업 신청을 받는다.

/김진성 기자

### 대학 특성화 사업 3차년도 연차평가

### 군산대 'A등급' 획득 쾌거

군산대학교가 교육부가 실시한 대학특성화사업 3차년도 연차평가에서 새만금ICT융합인재양성사업단이 A등급을, 새만금중일ME육성사업단이 B등급 평가를 받는 등 우수한 성과를 냈다. 이 평가는 전국 109개 4년제 대학 323개 사업단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패널 내 상대평가 A, B, C 등급으로 평가됐다. A등급은 전체 상위 20%에 포함되는 성과이다. 군산대학교는 호남·제주권 패널로 모두 15개 대학이 포함되었다. A등급 판정을 받은 새만금ICT융합인재양성사업단은 ICT융합 산업 중심인 새만금과 미래 ICT 융합기술을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단이다. 창의적 ICT 융합 엔지니어,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 양성, 산학 밀착형 협력체계 구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새만금중·일ME육성사업단은 인문학적 창의성을 가진 2가지 언어 전문가(중국어, 일본어, Multilingual Expert) 육성을 목표로 한다. 산학 협업체, 산학 연계 융복합 교육과정, 언어·문화연수, 현지 기업 실무교육, 국내외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일본문화·지역환경 학습, 자립심 고취를 위한 자율연수,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교류회, 인성 함양을 위한 봉사활동 등이 있다. 한편 군산대학교의 4차년도 특성화사업비는 모두 12억 2천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이다.

/군산=장현 기자

# 도-공무원노조연맹 단체교섭 상견례

전북도와 전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7일, 송하진 도지사와 최일호 전북연맹 위원장을 비롯한 양측 교섭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견례를 가졌다. 전북연맹은 도청과 시군 9개 공무원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연합체로서 2015년 광역자치단체와 첫 단체교섭 사례를 만든 이후 경신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게 된다. 이날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연맹이 도정의 소중한 동반자로서 도민들의 삶

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줄길 바라며, 동시에 건전한 노조 활동을 통해 공무원들의 권익증진에도 최선을 다해줄길 당부했다. 최일호 전북연맹위원장도 도와 도민을 위해서 그리고, 공무원들의 권리보호에 역할을 쏟겠다고 답했다. 도관계자는 "전북연맹과의 단체교섭을, 도와 시군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논의와 대안을 마련하는 소통의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